

「懷思」篇으로 바라본 이백의 그리움*

최우석**

【목 차】

1. 머리말
2. 이백의 그리움 - 「회사」편의 연원과 내용
 - 1) 「회사」편의 연원
 - 2) 「회사」편의 내용
3. 그리움의 주요 대상과 그 의의
 - 1) 최종지
 - 2) 하지장
 - 3) 사안
4. 맺음말

【초록】

이백의 「회사」편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첫째는 은일이나 유선에 대한 그리움이었고, 둘째는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었으며, 셋째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위진남북조의 이른바 ‘회사부(懷思賦)’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어서, 본고에서는 이것으로써 이백 「회사」편의 연원으로 삼았다. 특히 이러한 내용에는 사안, 하지장 그리고 최종지가 그 그리움의 주요 대상이었다. 사실 사안은 이백에게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 이백이 먼저 다가간 전대(前代)의 ‘지음’이었고, 하지장은 자신을 먼저 알아봐 준 당대(當代)의 ‘지음’이었으며, 최종지는 가장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현실 속의 ‘지음’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백의 「회사」편은 바로 이렇듯 이백의 내면세계 속에 매우 각별하게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던 것이다.

【키워드】 이백, 회사, 하지장, 사안, 최종지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tawoo@andong.ac.kr)

1. 머리말

현존하는 이백(李白; 701-762)의 시문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인 송민구(宋敏求; 1019-1079)의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宋蜀本)에는 「회사(懷思)」편의 분류가 보이는데, 그 아래에는 총 9제(題) 11수(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가 분류와 명명(命名)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백의 요청을 받아 편집 및 간각(刊刻)한 『초당집(草堂集)』의 저자인 이양빙(李陽冰; 생몰년미상, 약 762년 전후 활약)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설과 이양빙이 시를 모아 편집 및 분류를 했더라도 이는 이백의 뜻이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설로 크게 요약된다.¹⁾ 만일 ‘생각 내지는 그리움을 품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회사」라는 명칭을 이백 스스로가 직접 명명하고 그 아래 시를 모아 편집했다면, 이것을 통해 이백이 평소 품고 있는 생각이나 그리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령 이 「회사」편이 이백의 손이 아닌 후세의 다른 편집자에 의해 명명되고 편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편명 아래 수록된 시가 속에는 그야말로 이백이 평소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일과 인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회사」편을 대상으로 삼아 이백의 깊은 내면세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백의 「회사」편만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 및 발표된 것은 단 한 편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백의 연구에 보다 유익한 성과를 제공하여, 이백의 심층적인 내면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회사」편의 내용

1) 「회사」편의 연원(淵源)

중국의 시가집에서 「회사」라는 편명은 이백의 시문집에서 처음 보인다. 이백의 시문집에는 이와 유사한 편명으로 「사회(寫懷)」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이 둘의 내용과 성격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먼저 「사회(寫懷)」의 편명은 ‘품은 바를 쓰다’ 정도로 풀이 할 수 있는데, 이는 완적(阮籍; 210-263)의 「영회시(詠懷詩)」 이래로 『문선(文選)』에서 전문적인 편명으로 분류된 「영회(詠懷)」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가슴속의 ‘품은 바를 읊는’ 내용인 ‘영회’의 내용은 이백의 시에서는 「사회」편의 시가와 「고풍(古風)」59수에서²⁾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것으로

1) 예컨대 이백의 「古風」편의 명명(命名)에 대해서 郁賢皓는 「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中國文學研究』, 1989, 第4期)에서 李陽冰의 『草堂集』에서 처음 편집 정리한 것으로 보았으나, 喬象鍾의 「李白「古風」考析」(『文學遺產』, 1984, 第3期), 賈晉華의 「李白「古風」新論」(『中國李白研究』, 1991.07), 錢志熙의 「論李白「古風」五十九首的整體性」(『文學遺產』, 2010.01) 등에서는 모두 이백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고 있다.

2) 이백의 「古風」59수와 완적(阮籍)의 「영회시(詠懷詩)」와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최우석의 「이백 「古

보인다. 실제로 이백의 「사회」편에는 그 범위가 비교적 넓은 의미에서 시인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뜻이나 회포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이백의 「회사」편에는 ‘생각하다’ 혹은 ‘그리워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사(思)’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이백의 「회사」편에는 망자(亡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흠모하는 옛 인물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은일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내용이 위진남북조의 이른바 ‘회사부(懷思賦)’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세진양(謝晉洋)의 『위진남북조회사부(魏晉南北朝懷思賦)』에서는 위진남북조의 「회사부」의 내용을 크게 ‘연인(戀人)’, ‘망자(亡人)’, ‘친지나 친구(親友)’, ‘고향(家鄉)’ 그리고 ‘고국(故國)’에 대한 그리움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³⁾ 이 가운데 ‘망자(亡人)’나 ‘친지나 친구(親友)’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은 이백의 「회사」편에서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이니, 이 둘의 상관관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백의 「회사」편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회사부’의 내용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세진양은 같은 책에서 『초사(楚辭)』를 ‘회사부’의 ‘종주(宗主)’로 여기고 있다.⁴⁾ 이렇게 본다면, 이백의 시가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초사』에서 연원하는 ‘회사부’의 내용이 이백의 「회사」편의 창작에 일정 부분 모티브를 제공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물론 ‘부(賦)’와 ‘시(詩)’는 그 전통이 서로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창신(創新)’을 시도했던 이백의 시가 창작 경향을 감안한다면, 위진남북조의 ‘회사부’에서 이백 「회사」편의 연원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2) 「회사」편의 내용

현존하는 이백의 「회사」편에는 모두 9제 11수가 있다. 그 제목을 살펴보면, 「가을밤 홀로 앉아 옛 산을 그리며(秋夜獨坐懷故山)」과 「봄날 원수와 상수 간에 묶이어 산중을 그리워하다(春滯沅湘有懷山中)」와 「달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품다(望月有懷)」의 3수에 ‘회(懷)’자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8수에는 모두 ‘그리워하다’ 혹은 ‘추억하다’의 의미인 ‘억(憶)’자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낭중 최종지가 남양에 놀러 와서 나에게 공자급 준 것을 추억하며 이를 어루만지다가 눈물 흘리며 옛 생각에 젖다(憶崔郎中宗之遊南陽遺吾孔子琴撫之潸然感舊)」, 「추포의 복사꽃 피던 예 놀던 곳 생각하며. 이때 야랑으로 유배되었다(憶秋浦桃花舊遊時竄夜郎)」, 「술을 마주하고 비서감 하지장을 그리워하다(對酒憶賀監)」 등의 9수에 모두 ‘억’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목만 보더라도, 이백의 「회사」편에는 어떤 일이나 인물에 대해 추억하거나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백의 「회사」편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風’59수의 창작상의 ‘繼承’과 ‘創新’, 『중국어문논총』, 71집, 2015.10, 참조.

3) 謝晉洋, 『魏晉南北朝懷思賦』(湖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5, pp.17-41) 참조.

4) 謝晉洋, 같은 책, “『楚辭』可以說是懷思賦真正的宗主了.”(p.8)

내용	隱逸과 遊仙에 대한 그리움	亡者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	합계
소계	6	4	1	11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백의 「회사」편에는 이백의 다른 시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동경했던 은일과 유선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많은 내용으로 점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망자(亡者) 가운데 그 감정이 남달랐던 이에 대해 특별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또한 그 대상이 확실치는 않으나, 특별하게 애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한 수 있다.

(1) 은일과 유선에 대한 그리움

먼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은일 혹은 유선에 대한 지향내지는 그리움을 드러낸 것 가운데 「봄날 원수와 상수 간에 묶이어 산중을 그리워하다(春滯沅湘有懷山中)」를 살펴보자.

沅湘春色還	원수와 상수에 봄빛이 돌아와
風暖煙草綠	바람은 따스하고 안개 머금은 풀빛은 푸르네.
古之傷心人	옛날 상심했던 이는
於此腸斷續	이곳에서 몇 번이나 애가 끊겼으리.
予非懷沙客	나는 「회사」를 지었던 나그네가 아니라서
但美採菱曲	그저 「채릉곡」만을 아름답다고 여기네.
所願歸東山	바라기는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寸心於此足	내 마음은 이것으로 족하리.

이 시는 일반적으로 숙종(肅宗) 상원(上元) 원년(760) 초봄, 이백이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및 장사(長沙)에서 다시 악주(岳州)로 돌아와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봄날 원수와 상수에 머물며 동산에 은거하고픈 이백의 그리움을 흠뻑 느낄 수 있다. 전반부 4구에서 천지에 봄이 돌아와 바람이 따스해지고 풀이 푸르러지는 경물의 묘사는 마음 상한 사람의 애틋한 심정과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후반부 4구에서는 자신은 굴원(屈原)처럼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은 없고 다만 「마름 따는 노래(採菱曲)」나 부르겠다고 하였다. 즉 동산에 귀(歸隱)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마음이 족하다는 것으로 은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마름 따는 노래」는 마름을 따면서 부르는 민간의 노래로, 자연 속에서 평화롭고 한가로이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순박한 생활과 감정이 담겨있다. 아마도 이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속세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엄우(嚴羽)는 「옛날 상심했던 이(古之傷心人)」 구절에 대해 “옛 사람을 다 통괄하고 옛 사람을 모두 휩쓸었으니 식견이 탁월하다.(攝盡古人, 掃盡古人, 心眼高絕.)”라 하였고, 이어서 “‘여기서’, ‘여기서’라고 하여 단지 두 군데서 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 그 심정이 실제로 보는 듯하다.(於此於此, 只兩邊一指點,

心情如見.)”라⁵⁾며 이 시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이 시에서 흥미로운 점은, 위 시에서 “바라기는 동산(東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 것처럼, 이백의 ‘회사’편에서는 그리워하는 은일의 장소를 주로 ‘동산(東山)’이나 ‘옛 산(故山)’ 혹은 ‘산중(山中)’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산을 그리며(憶東山)」의 첫째 수(其一)에서는 “동산에 못 가본지 오래, 장미는 몇 번이나 꽃을 피웠을까?(不向東山久, 薔薇幾度花)”라 했고, 같은 제목의 두 번째(其二) 시에서는 “동산객에게 알려져, 빗장을 열고 흰 구름도 쓸어놓도록 하려네(欲報東山客, 開關掃白雲)”라 노래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동산’은 사안(謝安)이 물러나 은거했던 회계(會稽)의 동산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서술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하고자 한다. 이밖에 「가을 밤 홀로 앉아 옛 산을 그리며(秋夜獨坐懷故山)」 역시 “전원에 돌아와 한가히 농사일 하네(歸閑事耦耕)라며 은일에 대한 동경을 그려내고 있다.

한편 역시 ‘산중(山中)’을 그리워하며 지은 「저물녘 산중을 그리다(落日憶山中)」에서는 은일을 동경하는 정서 속에서 유선(遊仙)의 세계를 함께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雨後煙景綠, 비온 뒤 안개 깔린 경치 푸르고
晴天散餘霞. 갠 하늘엔 노을조각 흩어지네.
東風隨春歸, 샛바람이 봄을 따라 돌아와
發我枝上花. 우리 집 나뭇가지에 꽃을 피웠네.
花落時欲暮, 그 꽃잎 떨어지고 계절도 저물어가니
見此令人嗟. 이를 바라보다 탄식 절로 나는구나.
願遊名山去, 바라건대 명산으로 멀리 떠나
學道飛丹砂. 도를 배우고 단사를 정련했으면.

이 시는 이백이 지는 봄 저녁 꽃이 떨어지며 계절이 다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단약을 정련하는 유선의 삶을 위해 명산에 은거하고픈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백은 평생을 두고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고 세속적 삶을 초월하는 유선의 삶을 노래하였다. 이 시에서도 역시 명산에 은거하며 신선의 도를 닦고자 하는 이백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명대(明代) 주간(朱簡)은 이 시의 “구법(句法)이 청신(清新)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샛바람이 봄을 따라 돌아와, 우리 집 나뭇가지에 꽃을 피웠네’ 같은 구는 감정과 생각이 흘러 다니고 천기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 문자의 표현에만 그치지 않는다”⁶⁾라고 호평한 바 있다.

이어서 이백이 만년에 예전에 놀던 곳을 추억하는 가운데 유선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추포의 복사꽃 피던 예 놀던 곳 생각하며. 이때 야랑으로 유배되었다(憶秋浦桃花舊遊, 時竄夜郎⁷⁾)」를 살펴보자.

5) 嚴羽: “攝盡古人, 掃盡古人, 心眼高絕. … 於此於此, 只兩邊一指點, 心情如見.”(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百花文藝出版社, p3372.)

6) 朱簡: “句法清新而順麗, 如東風隨春歸, 發我枝上花, 情思流動而天機呈露, 又非獨詞焉而已也.”(詹鏐主編, 같은 책, p3373.)

7) 추포(秋浦)는 강 이름이자 지명이다. 귀지수(貴池水)로 지금은 추포하(秋浦河)라고 부른다. 지명으로

桃花春水生 봄 강물 불어 복사꽃이 떠 흐르니
白石今出沒 보이던 바위는 지금 물에 잠기려 하네.
搖蕩女蘿枝 흔들리는 여라 줄기
半掛青天月 반달이 걸린 파란 하늘.
不知舊行徑 궁금하구나, 예전에 걸던 길
初拳幾枝蕨 아기 손 같은 고사리 몇이나 자랐는지?
三載夜郎還 삼 년 후 야랑에서 돌아오면
於茲鍊金骨 거기에서 연단하며 신선술 배우리라.

일반적으로 이 시는 이백이 야랑으로 유배되는 명을 받은 이듬해인 758년(58세) 봄 야랑으로 가는 도중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시는 이백이 봄날에 야랑으로 유배되어 가는 도중에 예전에 놀던 추포를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이백의 인생에 있어서 유배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간절히 생각나는 곳이 추포이니, 아마도 그곳은 이백의 인생 중에 가장 의미 깊은 장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이백은 「추포의 노래(秋浦歌)」17首, 「추포에서 아내에게 부치며(秋浦寄內)」 등을 창작하며 추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듯 각별한 장소를 떠올리며 “거기에서 연단하며 신선술 배우리라(於茲鍊金骨)”라며 읊조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백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신선술을 배워 유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각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앞서 예로든 동산으로 대표되는 은일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 역시 이백의 내면세계에 있어서 은일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거경춘(葛景春)은 「李白與唐代的隱逸之風」에서 이백의 은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백은 단지 은일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으니, 그 하나는 관직을 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고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가 열심히 관직을 구할 때는 은일은 바로 그가 명성을 구하고 관직을 구하는 진취적인 수단이었다. 그가 통치자와의 결별을 결심하여 그들의 흉악함을 돕거나 오락을 도와주기를 원치 않을 때, 은일은 바로 그가 부귀를 버리기를 마치 해진 신발 같이 하고, 공명 보기를 마치 썩은 흙처럼 보아 그의 인격이 홀로 스스로 솟아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⁸⁾

앞서 예로 들어 살펴본 바와 같이 「추포의 복사꽃 피던 예 놀던 곳 생각하며. 이때 야랑으로 유배되었다」, 「봄날 원수와 상수 간에 묶이어 산중을 그리워하다」 등은 모두 말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이백이 「회사」편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은일과 유선은 위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관직을 구하는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수단’에 더욱 부

는 당대 선주(宣州)의 속현인 추포현을 가리킨다. 지금의 안휘성 지주시(池州市) 귀지구(貴池區)이다. 야랑(夜郎)은 야랑군으로(夜郎郡), 원래 진주(珍州)의 속현이었으나 742년에 야랑군으로 개명하였다.

8) 葛景春, 「李白與唐代的隱逸之風」: “李白只是把隱逸看成是一種手段, 一種是求仕, 一種是傲世. 當他熱心求仕時, 隱逸就是他以隱邀名、以隱求仕的進取手段. 當他決心與統治者決裂, 不願做他們的幫凶或幫閑時, 隱逸就是他棄富貴如敝屣, 視功名如糞土, 保持其人格獨立的傲世手段.” 『天府新論』, 1994. 6期, p.62.

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백의 「회사」편에 드러난 이백의 깊은 내면 세계에 속에는 ‘세상을 내려다보고자(傲世)’하는 의식이 흐름이 비교적 선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2) 망자에 대한 그리움

이백의 「회사」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을 보이는 것은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망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총 4수의 시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상은 1수는 최종지(崔宗之; 생졸년미상)에 대한 그리움이고, 나머지 3수는 하지장(賀知章; 659-744)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최종지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낭중 최종지가 남양에 놀러 와서 나에게 공자급 준 것을 추억하며 이를 어루만지다가 눈물 흘리며 옛 생각에 젖다(憶崔郎中宗之遊南陽遺吾孔子琴撫之潸然感舊)」를 살펴보자.

昔在南陽城	예전에 남양성에 있을 때
唯餐獨山蕨	독산에 나뉜 고사리만 먹었네.
憶與崔宗之	추억하노니 최종지와 함께
白水弄素月	백수가에서 밝은 달과 놀았었네.
時過菊潭上	때때로 국화꽃 핀 물가에 들러
縱酒無休歇	쉬지 않고 마음껏 술 마셨네.
汎此黃金花	황금색 꽃잎 술잔에 띄워놓고
頽然清歌發	마음껏 맑은 목소리로 노래했었네.
一朝摧玉樹	하루아침에 옥나무 같던 그대 꺾이니
生死殊飄忽	삶과 죽음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바뀌었구나.
留我孔子琴	나에게 공자금을 남겼건만
琴存人已沒	공자금만 남고 사람은 이미 가고 없네.
誰傳廣陵散	누가 「광릉산」 곡을 전해줄 수 있을까?
但哭邛山骨	그저 북망산 유골 앞에서 울기만 할 뿐.
泉戶何時明	묘문에 별 들 날이 있을까?
長歸狐兔窟	길이길이 여우 토끼 굴이 되겠구려.

이 시는 이백과 함께 ‘주팔선인(酒八仙)’⁹⁾이라고 불리던 막역한 친구 최종지가 죽자 친구의 무덤을 찾아보고 지은 것이다. 시의 전반부 여덟 구는 최종지와 남양에서 함께 했던 추억을 묘사하였고, 후반부 여덟 구는 유명을 달리한 최종지를 애도하면서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목의 ‘산연(潸然)’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이듯이 이 시에는 이백이 최종지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그의 진정성이 남다름을 충분히

9) 『新唐書·文藝列傳』卷202에 “이백은 스스로 현종의 측근의 마음을 사지 못할 것을 알았다. 이에 더욱더 순종하지 않은 채 오만방자하게 굴며 스스로를 수양하지 않았다. 하지장(賀知章), 이적지(李適之), 여양왕 이진(李璡), 최종지(崔宗之), 소진(蘇晉), 장욱(張旭), 초수(焦遂) 등과 어울리어 당시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는 여덟 명의 신선’이라 불렀다.(白自知不爲親近所容, 益驚放不自修, 與知章、李適之、汝陽王李璡、崔宗之、蘇晉、張旭、焦遂爲酒八仙)”라는 구절이 보인다.(中華書局, 1997. p.5763.)

감지할 수 있다. 엄우(嚴羽)의 평본(評本)에는 “심오한 말은 없다. 단지 눈앞에 있는 것에 의거하여 뜻을 솔직하게 서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슬픔이 극대화되었다”¹⁰⁾라는 명대 사람의 비점이 실려 있다.

망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내용에는 최종지와 더불어 ‘주팔선인(酒八仙)’의 한사람으로 불렸던 하지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인, 「술을 마주하고 비서감 하지장을 그리워하다(對酒憶賀監)」 첫 번째(其一)와 두 번째(其二) 및 「다시 그리워하며(重憶一首)」 등 3수가 있다. 이 가운데 「술을 마주하고 비서감 하지장을 그리워하다(對酒憶賀監)」 두 번째(其二)를 살펴보자.

狂客歸四明	광객이 사명산으로 돌아오자
山陰道士迎	산음의 도사들이 맞이하였지.
敕賜鏡湖水	황제께서 경호를 하사하고
爲君臺沼榮	영광스럽게 그대 위해 누대와 연못 지어주었지.
人亡餘故宅	사람은 가고 옛집만 남았는데
空有荷花生	부질없이 연꽃만 피어있네.
念此杳如夢	이를 생각하니 꿈인 듯 막막하여
淒然傷我情	애달프게 내 마음 아파오네.

이 시는 스스로를 ‘사명광객(四明狂客)’¹¹⁾으로 불렸던 하지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것이다. 대체로 천보6년(747) 여름 이백이 동로(東魯)에서 회계(會稽)로 남하하다 하지장의 고택을 들렀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첫 구부터 4구까지는 이백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공을 이룬 뒤에 몸을 뒤로 물러 은거하는(功成身退)’ 삶을 이룬 하지장의 이상적인 은일을 노래했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옛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가고 없는데서 오는 애달픈 슬픔을 처연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슬픔을 감추지 않고 “애달프게 내 마음 아파오네”라며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서술한 바 있는 최종지와 마찬가지로 하지장 역시 이백의 내면세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비교적 확연히 알 수 있다.

(2) 친구에 대한 그리움

10) 嚴羽本載明人批: “無深語, 只就眼前意直寫出, 自爾悲至.”(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57.)

11) 『新唐書·隱逸傳』에 “하지장은 자가 계진이고 월주 영흥 사람이다. 천성이 활달대범하고 거리낌이 없으며 담론을 잘하였다. … 하지장은 만년에 절도가 더욱 거리낌이 없어져 마을의 골목을 돌아다니며 놀기를 좋아하였고 스스로를 ‘사명광객’과 ‘비서외감’이라고 불렀다. 매번 취할 때마다 곧 글을 지었는데, 붓의 멈춤도 없이 글을 썼으며 모두 훌륭하여 삭제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었다.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으며 호사자들이 붓과 벼루를 갖추어 좇아 왔을 때 마음에 흡족하면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이에 쓰여진 10여 글자만이 세상에 전해져 보물이 되었다(賀知章, 字季真, 越州永興(今浙江蕭山縣)人. 性曠夷, 善談說. … 知章晚節尤誕放, 遨嬉裏巷, 自號‘四明狂客’及‘秘書外監’, 每醉輒屬辭, 筆不停書, 鹹有可觀, 未始刊飭. 善草隸, 好事者具筆研從之, 意有所愜, 不復拒. 然紙纔十數字, 世傳以爲寶)”라는 기록이 보인다.(北京, 中華書局, 1997. p.5607.)

이백의 「회사」편에서 망자가 아닌 살아있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1수 있다. 「달을 보며 감회에 젖다(望月有懷)」가 바로 그것이다.

清泉映疏松	맑은 샘물에 비치는 늙은 소나무
不知幾千古	몇 천 년이나 되었는지 모르겠네.
寒月搖輕波	차가운 달그림자 잔물결에 흔들리고
流光入窗戶	흐르는 달빛은 창문으로 들어오네.
對此空長吟	이를 마주하여 공연히 길게 읊조려보니
思君意何深	그대 그리워하는 마음 얼마나 깊은가!
無因見安道 ¹²⁾	대안도를 만날 길조차 없으니
興盡愁人心	흥은 다하고 마음만 시름겹네.

이 시는 이백이 달빛 아래서 누군지는 확실치 않은 막역한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크게 전 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 4구에서는 맑고 고요한 달밤의 정경이 비교적 부드럽고 가벼운 터치로 묘사되어 있고, 후반 4구에서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곡진하게 드러나 있다. 전반적으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막힘없이 그대로 써내려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명대(明代) 주간(朱諫)이 『이시변의(李詩辨疑)』에서 “시어가 맑고 가벼우나 알다. 뒤 4구는 앞 구보다 못하니, 바로 손 가는대로 쓴 작품이다.”¹³⁾라고 평한 바 있다. 이백은 달빛 아래에서 ‘고독(孤獨)’의 주체가 되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달빛 아래서 홀로 술을 마시다 “잔을 들고 맑은 달을 부르거나”¹⁴⁾, “침상 앞에 맑은 달빛 환하니,”¹⁵⁾ 절절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달빛’과 ‘고독’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는 확연한 것이다. 이 시에 대해 명대의 당여순(唐汝詢)이 『당시해(唐詩解)』에서 “이것은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이다. 연못, 돌, 소나무, 숲 사이에서, 달그림자가 창문에 드리워지니 사람을 그리워함이 더욱 절절함을 말하고 있다. 이때 흥을 타고 서로 만날 수도 없으니, 단지 흥이 다하고 수십만 생겨날 뿐이다.”¹⁶⁾라고 언급한 것 역시 그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12) 안도(安道): 晉代의 저명한 미술가이자 조각가인 대규(戴逵, 326-396)의 字이다. 여기서는 이백이 그리워하는 친구를 가리킨다. 『世說新語·任誕』에 “왕희지는 산음에 살았는데, 밤에 큰 눈이 내리자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어 놓고 술을 내오라 했다. 사방을 보니 고요하여 일어나 서성이면서 좌사의 「초은시」를 읊었다. 문득 친구 대안도가 생각났는데, 이때 안도는 섬계에 살았기에 밤중인데도 불구 하고 즉시 작은 배를 띄우고 그곳으로 갔다. 밤을 새어 막 도착해 문에 이르렀으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으니 자유가 말했다. ‘나는 본래 흥이 일어나 간 것이고 흥이 다해 돌아 온 것이다. 어찌서 반드시 안도를 봐야 하는가?’(王子猷居山陰, 夜大雪, 眠覺, 開室, 命酌酒. 四望皎然, 因起彷徨, 詠左思「招隱」詩. 忽憶戴安道, 時戴在剡, 即便夜乘小船就之. 經宿方至, 造門不前而返. 人問其故, 王曰, ‘吾本乘興而行, 興盡而返, 何必見戴’)”라는 전고가 있다.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94. p.408.)

13) 朱諫: “辭清輕而淺. 後四句不若前四句, 乃率爾之作也.”(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62.)

14) 「月下獨酌」: “舉杯邀明月, 對影成三人.”(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267.)

15) 「靜夜思」: “床前明月光, 疑是地上霜.”(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897.)

16) 唐汝詢, 『唐詩解』: “此懷友之詩. 言於泉石松林之際, 而月影當窗, 懷人良切矣. 於此時而不能乘興相從, 徒使興盡而愁生耳.”(保定, 河北大學出版社, 2001. p.83.)

3. 그리움의 주요 대상과 그 의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백의 「회사」편에는 망자나 혹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가장 많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은일이나 유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내용의 대부분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동산(東山)의 형상은 이백이 평생을 두고 흠모해 마지않았던 동진(東晉)의 사안(謝安; 320-385)에서 유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백의 「회사」편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그리워하거나 혹은 그 대상과 연관된 일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백의 「회사」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그리움’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대상은 이백의 내면세계 속에서 어떠한 형상으로 투영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 대상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동산’으로 상징되는 사안 외에, 최종지와 하지장이 주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사람은 이양빙이 작성한 「초당집(草堂集)」의 「서문(序文)」에 함께 나란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쁜 사람과 바른 사람이 함께 조정에서 관직생활을 하니, 이해관계로 인하여 비방이 난무하여, 바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황제는 인재를 멀리하였다. 이에 이백은 정치 없이 세상을 떠돌며 절제 없이 술을 마시며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감추었다. 그는 시를 읊을 때마다 종종 동산을 언급하였다. 또한 하지장과 최종지 등과 어울리어 스스로 여덟 명의 신선이 함께 노닐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백을 일컬어 인간세계로 쫓겨 온 신선이라 하였다.¹⁷⁾

이양빙은 이백의 말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고 누구보다도 이백의 심중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그가 「초당집서」에 연이어 언급하고 있는 사안의 동산, 하지장 그리고 최종지는 분명 이백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각별한 존재였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은 이백의 「회사」편에서 가장 특별하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아래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 하나씩 고찰하는 가운데 그 내재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사안

앞의 『초당집』의 「서문」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백은 “시를 읊을 때마다 종종 (사안의) 동산을 언급하였다.” “동산에 누워있다 때가 되면 일어나, 백성들을 구한다 해도 늦는 것은 아니리라!”¹⁸⁾라 했고, “다만 동산의 사안 같은 인재를 등용한다면, 임금 위해 웃고

17) 李陽冰, 『草堂集·序』: “醜正同列, 害能成謗, 格言不入, 帝用疏之. 公乃浪跡縱酒, 以自昏穢. 詠歌之際, 屢稱東山. 又與賀知章、崔宗之等自爲八仙之遊, 謂公謫仙人.”(詹鎔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p.1-2.)

18) 「梁園吟」: “東山高臥時起來, 欲濟蒼生未應晚.”(詹鎔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1055.)

즐기며 이야기하면서 오랑캐의 난을 평정하리라!”¹⁹⁾라 읊기도 했고, “사안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세상 구제에 마음 없었네. 한번 일어나 혼탁한 세상을 구제하여, 공을 이루고 나서는 다시 초연해졌다네.”²⁰⁾라고 노래하는 등, 이백은 시의 곳곳에서 사안에 대한 추앙의 마음을 한껏 드러내었다. 이에 관해 중국의 학자 장루이권(張瑞君)은 「李白與謝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백이 사안을 매우 추종했고 시문 중에 사안이 유독 많이 등장했던 이유는, 사안이 자신의 인생이상과 사회이상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백과 사안의 기질이 비슷하였고, 인생태도에도 비슷한 점이 있고 생활의 이상 역시 비슷했기 때문이다. 은거하며 때를 기다리고, 공을 이룬 후에 몸을 물리는 것은 이백이 추앙하는 정치이상이었다. 고고하게 자신을 드높이고 높고 원대한 뜻을 품으며 부귀영화를 좇지 않는 것은 이백이 사안을 존경해하던 또 다른 측면이었다.²¹⁾

이백에게 있어서 사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찌면 가장 닮고 싶은 존재였던 동시에, 이백이 가장 잘 이해하는 ‘지음(知音)에 해당하는 존재였던 것으로 여겨도 무방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백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표현으로 여길 수 있는 「회사」편에서도 사안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총 11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4수에서 사안 혹은 사안으로 상징되는 동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동산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확연히 드러낸 「동산을 그리며(憶東山)」 두 수를 살펴보자.

첫 번째(其一)

不向東山久, 동산에 못 가본 지 오래
薔薇幾度花? 장미는 몇 번이나 꽃을 피웠을까?
白雲他自散, 흰 구름은 여전히 절로 흩어지고
明月落誰家? 밝은 달은 뉘 집을 비출까?

두 번째(其二)

我今攜謝妓 나는 지금 사안처럼 기녀를 데리고
長嘯絕人群 길게 휘파람 불며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려네.
欲報東山客²²⁾ 동산객에게 알려서

19) 「永王東巡歌」其二: “但用東山謝安石, 爲君談笑靜胡沙.”(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1155.)

20) 「贈常侍御」: “安石在東山, 無心濟天下. 一起振橫流, 功成復瀟灑.”(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1660.)

21) 張瑞君, 「李白與謝安」: “李白十分推崇謝安, 詩文中出現次數很多, 因爲謝安適合自己的人生理想和社會理想. 李白與謝安的氣質相似, 人生態度也有相似之處, 生活理想也很相似. 隱居待時、功成身退, 是李白仰慕的政治理想; 狂傲自負、志存高遠、不慕榮華是李白欽佩謝安的另一方面.”(『清華大學學報』, 2005. 5期.)

22) 東山客(동산객): 동산에 사는 사람으로, 여기서는 謝安과 같은 은자를 가리킨다. 『文選』권16 江淹의 「恨賦」에 “빗장을 걸고 쓸기를 멈추고, 문을 닫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閉關卻掃, 塞門不仕)”라고 한 것에 대해, 李善은 “司馬彪의 『續漢書』에 “조일은 빗장을 걸고 쓸기를 멈추고, 덕이 없는 사람과는 왕래하지 않았다(趙壹閉關卻掃, 非德不交)”라 했다. 『文選』권21 顏延年の 「五君詠恨·劉參軍」에서는 “유령은 굳게 빗장을 걸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보고 듣는 것을 멈추었다(劉伶善閉關, 懷情減聞見)”라고 했다.(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60.)

開關掃白雲 빗장을 열고 흰 구름도 쓸어놓도록 하려네.

위 두 시의 창작시기에 대해, 잔잉(詹鎡)은 앞서 인용한 「초당집서에서 “이에 이백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며 절제 없이 술을 마시며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감추었다. 그는 시를 읊을 때마다 종종 동산을 언급하였다.”라는 대목에 근거하여, 천보3년(744) 이백이 비방을 당해 한림공봉을 그만두고 동산으로 돌아갈 즈음에 지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나²³⁾ 확실치는 않다.

첫 번째 시 속에서 드러난 이백의 동산과 사안에 대한 그리움은 매우 확연하다. 시 속의 ‘흰 구름(白雲)’과 ‘밝은 달(明月)’의 표현은 사안의 은거생활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안의 은일에 대한 그리움이 자연스런 시어로 표현되어, 청대(清代)의 『이시위(李詩緯)』에서는 “전체적으로 ‘억(憶)’자 한 글자로 관통하고 있으나, 도리어 참신한 아취를 얻었다”²⁴⁾라고 호평 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시에 대한 해석은 역대로 다소 엇갈린다. 먼저 명대(明代) 당여순(唐汝詢)은 『당시해(唐詩解)』 권21에서 “위에서는 이 산이 황폐해진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지금 나는 사안을 본받아 기녀를 데리고 후련하게 세상을 등졌으니, 저 동산객이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지 않겠는가. 이는 이미 나의 풍류가 사안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⁵⁾고 했다. 그러나 청대(清代) 오창기(吳昌祺)는 『산정당시해(刪訂唐詩解)』 권11에서 “앞에서는 오랫동안 가지 못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을 말했다. 당여순은 지금 이백이 사안을 잇는다는 뜻이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잘못된 것일 것이다”²⁶⁾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의 학자 잔잉(詹鎡)은 이 시의 마지막 2구는 자신이 이미 동산에 은거하며, ‘동산객(東山客)’에게 방문을 청하는 후의를 알려서 다시는 문을 닫고 청소를 하지 않고 손님을 거절하는 일 없이 문을 열고 흰 구름까지 쓸어가며 고결한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²⁷⁾ 이와 같이 「동산을 그리며」 두 번째 수의 제3, 4구는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이 시의 마지막 2구는 시인이 동산에 은거할 뜻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 이백 자신도 사안이 그랬던 것처럼 기녀를 데리고 동산으로 돌아가 세상과 단절하려 하니,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두고 고결한 손님인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알려겠다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동산을 그리며」 두 수는 이백이 사안의 여러 형상 가운데 은일의 공간인 동산을 원용하여 그것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백의 「회사」의 다른 시에서 동산이나 사안을 노래할 때도 역시 은일과 결합된 형상으로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을밤 홀로 앉아 옛 산을 그리며(秋夜獨坐懷故山)」에서는 “사안(謝安)을 양모하여 산림에 은거하고”²⁸⁾라고 읊었고, 「봄날 원수와 상수 간에 묶이어

23) 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58. 참조.

24) 應時, 『李詩緯』: “總是一‘憶’字, 卻轉得清脫.”(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59.)

25) 唐汝詢, 『唐詩解』卷21: “上言此山荒蕪既久, 今我做謝之攜妓, 曠然絕俗, 彼東山之客, 能不開關迎我耶? 是己之風流堪繼謝也.”(保定, 河北大學出版社, 2001. p.477.)

26) 吳昌祺, 『刪訂唐詩解』卷11: “上言久不至, 此言重過. 唐謂今繼謝公, 恐非.”(p.3361.)

27) 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p.3360-3361. 참조.

28) 「秋夜獨坐懷故山」: “小隱慕安石.”(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49.)

산중을 그리워하다(春滯沅湘有懷山中)에서는 “바라기는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내 마음은 이것으로 족하리”²⁹⁾라 노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이백의 「회사」편에서 읊고 있는 사안이나 동산의 이미지는 모두 은일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 이백 스스로 자신이 가장 닮고 싶은 존재이거나 혹은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지음(知音)’으로 여길 수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이백이 평생을 두고 노래했던 은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 「회사」편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하지장

이백의 「회사」편에서 하지장은 사안만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맹계(孟榮:생졸년 미상, 875년 전후 활약)의 『본사시(本事詩)』에 보이는 다음의 대목은 이백과 하지장의 사이에 얹힌 유명한 일화이다.

이백이 촉 지방에서 수도 장안에 막 도착했을 때 객사에서 머물렀다. 하지장이 그의 명성을 듣고 처음으로 그를 방문하였는데 곧 그의 자태가 남다름을 보고 지은 글을 보여줄 것을 거듭 청하였다. 「촉도난」을 꺼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하지장이 다 읽기도 전에 찬탄한 것이 수 차례로, 이백을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온 신선인 적선이라 칭했다. 금귀대를 풀어 술과 바꾸고는 이백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취하도록 마셨는데 그 기간이 여러 날이었으니 이로 인해 이백의 명성이 빛나게 되었다.³⁰⁾

하지장이 금귀대를 풀어 함께 술을 함께 마신 일은 이백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일대 경험이었다. 이백은 이 일을 두고두고 자랑으로 삼았으며 하지장에 대해서는 큰 경외심을 갖는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준 진정한 ‘지음(知音)’으로도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백은 한없는 슬픔과 그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백의 「회사」편에 보이는 3수의 하지장에 대한 그리움은 모두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 가운데 「술을 마주하고 비서감 하지장을 그리워하다(對酒憶賀監)」³¹⁾ 첫 번째(其一) 시를 살펴보자.

并序(서문과 함께)

太子賓客賀公，於長安紫極宮一見餘，呼餘爲謫仙人。因解金龜，換酒爲樂。沒後對酒，悵然有懷，而作是詩。(태자빈객 하지장이 장안의 자극궁에서 나를 처음 만나서 적선인이라 불렀고, 금귀대를 풀어 술로 바꾸어 함께 즐겼다. 그가 작고한 후에 술을 대하니 슬픈 마음에 그리움이 일어

29) 「春滯沅湘有懷山中」“所願歸東山，寸心於此足。”(詹鏐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p.3371.)

30) 孟榮，『本事詩·高逸』권3: “李太白初自蜀至京師，舍於逆旅。賀知章聞其名，首訪之，既奇其姿，復請所爲文。出蜀道難以示之。讀未竟，稱歎者數四，號爲謫仙。解金龜換酒，與傾盡醉，期不間日，由是稱譽光赫。”(詹鏐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p.3364.)

31) 하감(賀監): 하지장은 당나라 월주(越州) 회계(會稽)사람으로, 말년에 귀향하여 회계의 감호(鑒湖)에 살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주선(酒仙)이라 불렀다. 하지장은 비서감(秘書監)을 지낸 적이 있으며 만년에 자신의 호를 비서외감(秘書外監)이라 하였기에 하감(賀監)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시를 짓는다.)

四明有狂客,³²⁾ 사명산에 광객 있었으니
 風流賀季眞. 풍류가 넘치는 하지장일세.
 長安一相見, 장안에서 한 번 보고는
 呼我謫仙人. 귀양 온 신선이라 불렀지.
 昔好盃中物, 그 옛날 술을 좋아하더니만
 翻爲松下塵. 도리어 소나무 아래의 먼지 되었네.
 金龜換酒處, 금귀대로 술을 바꾸던 그때의 일
 卻憶淚沾巾.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이 손수건을 적시네.

앞에서 살펴본 『본사시』의 내용이 처음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시의 서문에서이다. 그 내용 역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이백이 동로(東魯)에서 회계(會稽)로 남하한 후, 천보6년(747) 여름 하지장의 고택을 지나가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시의 내용을 보면 처음 두 구절에서 하지장의 풍류를 묘사하였고, 제3, 4구에서는 하지장이 처음 만난 이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천상의 신선으로 불렀던 일을 그리고 있다. 제6구에서 마지막 구까지는 주선(酒仙)인 하지장이 금귀대를 풀어 술로 바꾸어서 이백과 함께 마셨던 일을 회상하며 그를 애뜻하게 그리워하고 있다. 이시의 첫 구에 대해 엄우(嚴羽)는 “(자신을 적선인이라 불러 주었기에)광객이라고 답한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면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니 또한 지나친 칭찬이 아니다. 진술하여 본받을 만하다”³³⁾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술을 마주하고 비서감 하지장을 그리워하다」 두 번째(其二)에서는 “사람은 가고 옛집만 남았는데, 부질없이 연꽃만 피어있네. 이를 생각하니 꿈인 듯 막막하여, 애달프게 내 마음 아파오네”³⁴⁾라 했고, 「다시 그리워하며 1수(重憶一首)」에서는 “강동으로 가고자 한다면, 대체 누구와 술잔을 들 것인가?”³⁵⁾라 읊으며 하지장이 가고 없음을 절절하게 슬퍼하고 있다.

사실 이백에게 있어서 하지장은 자신을 알아보고 금귀대를 풀어 술을 마신 것 이상의 특별한 존재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학자 차오췌(曹旭)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지장은 만년에 도사로 지냈는데, 이백 역시 도교에 참가했었다. 하지장은 스스로 ‘사명광객’이라 불렀는데, 이백 또한 스스로를 ‘초광인’이라 불렀다. 하지장은 그 사람됨이 공명을 가벼이 보고 얹매임 없이 활달하였고, 이백은 부귀권세를 하찮게 보고 자유로운 개성의 해방을 갈망하였다. 이백을 늘 마음속으로 “성군을 보필하여 공을 이루고 옛 산림으로 돌아가기”와 “공을 이룬 후 옷을 털고 무릉원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했는데, 하지장은 말년에 경호에 귀을 하였으니, 바로 이백이 항상 바라던 공을 이룬 후에 몸을 물린다는 것의 전범이 되는 것이다.³⁶⁾

32) 사명(四明): 산 이름으로 지금의 저장성 Ningbo(寧波)시 서남쪽에 있다. 하지장의 집이 이곳에 있었다.

33) 嚴羽: “以狂客答其呼(指呼餘爲謫仙人), 易地皆然, 又不過譽, 眞率, 可法.”(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66.)

34) 「對酒憶賀監」其二: “人亡餘故宅, 空有荷花生. 念此杳如夢, 淒然傷我情.”(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66.)

35) 「重憶一首」: “欲向江東去, 定將誰舉杯.”(詹鏐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67.)

36) 曹旭, 「李太白與賀知章」: “賀知章晚年度爲道士, 李白也參加過道教; 賀知章自號“四明狂客”, 李白也稱

이렇게 본다면 이백이 하지장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것은 단순히 금귀대를 풀어 함께 술을 마신 것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장이 이백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백 역시 하지장을 깊이 이해하는 ‘지음(知音)’의 관계였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안이 시공을 뛰어 넘은 전대(前代)의 ‘지음’이었다면, 하지장은 함께 교유했던 당대(當代)의 ‘지음’이었던 셈이다. 이백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는 「회사」편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등장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한데에는 이러한 의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최종지

이백의 「회사」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이가 바로 최종지이다. 앞서 살펴본 『신당서(新唐書)』에 이백은 “하지장(賀知章), 이적지(李適之), 여양왕 이진(李璿), 최종지(崔宗之), 소진(蘇晉), 장욱(張旭), 초수(焦遂) 등과 어울리어 당시 사람들이 ‘술을 사랑하는 여덟 명의 신선’이라 불렀다”³⁷⁾라는 기록이 보인다. 특히 이 가운데 최종지는 하지장과 더불어 이백의 재능과 뜻을 잘 이해했던 ‘지음’이었다. 『구당서·이백전(李白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일로 조정에서 배척되어 쫓겨났다. 이에 강과 호수를 방랑하며 온 종일 술을 마셨다. 이때에 시어사 최종지가 금릉으로 좌천되어 갈 때 이백과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술을 마셨다. 일찍이 두 사람은 달이 밝은 밤에 배를 타고 채석기에서 금릉까지 갔었다. 이백은 궁중에서 하사한 비단 도포를 입었는데, 배안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마음껏 즐거워하니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듯하였다.³⁸⁾

『구당서·이백전』의 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최종지와 교유를 소개하고는 대목이다. 이백이 궁궐을 떠나 실의에 빠졌을 때, 역시 좌천되어 가는 길에 만난 최종지와 교류는 실로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백의 최종지에 대한 감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백은 그의 다른 시에서 최종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라건대 그대와 손을 잡고, 오래도록 남산의 그윽한 곳에서 노닐 수 있기를!”³⁹⁾ 이라고 하거나, “그대 그리워하건만 볼 수 없으니, 먼 곳 바라보며 이별의 우수만 더하네”⁴⁰⁾라며 최종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다. 특히 「최종지 낭중에게 답하다(酬崔五郎中)」에서는

自己“楚狂人”; 賀知章爲人看輕功名、放浪曠達, 李白蔑視權貴, 渴望個性自由解放; 李白一心想“願一佐明主, 功成還舊林”, “功成拂衣去, 歸入武陵源”, 而賀知章晚年歸隱鏡湖, 正是李白所企慕的功成身退的典範.”(上海师范大学学报, 1981. 04, p.152.)

37) 주석 9번 참조.

38) 『舊唐書·李白傳』: “由是斥去. 乃浪迹江湖, 終日沉飲. 時待御史崔宗之謫官金陵, 與白詩酒唱和. 嘗月夜乘舟, 自采石達金陵, 白衣宮錦袍, 於舟中顧瞻笑傲, 傍若無人.”(北京, 中華書局, 1997. p.5053.)

39) 「贈崔郎中宗之」: “希君同攜手, 長往南山幽.”(詹鎔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1485.)

40) 「月夜江行寄崔員外宗之」: “懷君不可見, 望遠增離憂.”(詹鎔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1959.)

“지팡이 짚고 영웅호걸 찾으니,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곧 나를 알아보았네. … 다만 오랫동안 소매 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숭산일 필요는 없으리”⁴¹⁾라며 자신을 알아봐주는 ‘지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신당서·최일용전(崔日用傳)』에서도 “아들은 최종지인데, 세습으로 봉지를 이어받았다. 역시 학문을 좋아했으며, … 이백, 두보와 더불어 문장으로 서로를 알아주었다.”⁴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회사」편에 보이는 「낭중 최종지가 남양에 놀러 와서 나에게 공자금 준 것을 추억하며 이를 어루만지다가 눈물 흘리며 옛 생각에 젖다」의 내용에서도 이백은 최종지를 ‘지음’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昔在南陽城	예전에 남양성에 있을 때
唯餐獨山蕨	독산에 나뉜 고사리만 먹었지.
憶與崔宗之	추억하노니 최종지와 함께
白水弄素月	백수가에서 밝은 달과 놀았지.
時過菊潭上	때때로 국화꽃 핀 물가에 들러
縱酒無休歇	쉬지 않고 마음껏 술마셨네.
汎此黃金花	황금색 꽃잎 술잔에 띄워놓고
頽然清歌發	마음껏 맑은 목소리로 노래했었네.
一朝摧玉樹	하루아침에 옥나무 같던 그대 꺾이니
生死殊飄忽	삶과 죽음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바뀌었구나.
留我孔子琴 ⁴³⁾	나에게 공자금을 남겼건만
琴存人已沒	공자금만 남고 사람은 이미 가고 없네.
誰傳廣陵散 ⁴⁴⁾	누가 「광릉산」 곡을 전해줄 수 있을까?
但哭邙山骨	그저 북망산 유골 앞에서 울기만 할 뿐.
泉戶何時明	묘문에 별 들 날이 있을까?
長歸狐兔窟	길이길이 여우 토끼 굴이 되겠구려.

시는 먼저 지난날 함께 누렸던 은일의 아취(雅趣)를 묘사하는 것으로 최종지와 추억을 그려 낸 뒤, 저 세상으로 간 친구를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41) 「酬崔五郎中」: “杖策尋英豪, 立談乃知我. … 但得長把袂, 何必崇丘山.”(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2648.)

42) 『新唐書·崔日用傳』: “子宗子, 襲封, 亦好學, … 與李白、杜甫以文相知者.”(p.4331.)

43) 공자금(孔子琴): 부자양금(夫子樣琴)이라고도 한다. 공자가 사용했던 거문고의 모양과 치수에 따라 제작한 거문고. 『文獻通考·樂考』에 “자고로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이 팔십여명에 거문고는 열여덟 종류가 있었다. 그 고상한 정도를 궁구해보건대 단지 복희씨, 순임금, 공자, 영개, 운화 등 다섯 명 뿐이다. 『진씨악서·금제론』에 공자금의 모양은 길이가 3척 6촌 4분이다(自古善琴者八十餘家, 一十八樣. 究之雅度, 不過伏羲、大舜、夫子、靈開、雲和五等而已…). 『陳氏樂書·琴制論』… 孔子樣長三尺六寸四分)”라는 기록이 있다.(詹鎡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p.3354.)

44) 『世說新語·雅量』에 “중산대부 혜강이 동시에서 처형을 앞두고도 낮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문고를 당겨 「광릉산」을 연주하였다. 연주를 마치고 나서 ‘원준이 일찍이 이 「광릉산」을 배우고자 했지만 내가 아까워서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이 「광릉산」이 여기에서 끝나는구나’라고 하였다(稽中散臨刑東市, 神氣不變, 索琴彈之, 奏廣陵散. 曲終曰: ‘袁孝尼嘗請學此散, 吾靳固不與, 廣陵散於今絕矣’)”라는 기록이 있다.(『世說新語校箋』, pp.194-195.)

이백은 ‘공자금(孔子琴)’과 ‘광릉산(廣陵散)’으로 최종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사용했다는 거문고’를 남기고 떠나갔다는 것과 혜강이 죽으면서 그 노래를 더 이상 이을 자가 없어 끝이 나게 되었다는 ‘광릉산’의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지음(知音)’의 고사로 널리 알려진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의 일화⁴⁵⁾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즉 ‘공자금’과 ‘광릉산’은 최종지를 ‘지음’으로 보는 이백의 내면세계가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시 역시 앞서 살펴 본 사안이나 하지장과 마찬가지로, 이백의 깊은 내면 세계 속에서 ‘지음’으로 인식되는 대상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었던 셈이다.

4. 맺음말

「회사(懷思)」라는 편명은 아마도 ‘그리움 내지는 생각을 품다’ 정도로 풀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백의 「회사」편에 실린 시가 속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의 그리움을 엿볼 수 있었다. 첫째는 총 11수 가운데 6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일이나 유선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두 번째는 4수에서 보이는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셋째는 1수에서 보이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위진남북조의 이른바 「회사부(懷思賦)」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어서, 본고에서는 이것으로써 이백 「회사」편의 연원으로 삼기도 하였다.

한편 이백의 「회사」편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직접적으로 그리워하거나 혹은 그 대상과 연관된 일을 그리워하는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 속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은일의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동산’은 사안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었으며, 이밖에도 하지장과 최종지는 이백이 직접적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이백의 내면세계 속에 접하고 있는 이 세 명의 지위를 유추 할 수 있었다. 사안은 이백에게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해 이백이 먼저 다가간 전대(前代)의 ‘지음’이라 한다면, 하지장은 자신 보다 연배이지만 자신을 먼저 알아봐 준 당대(當代)의 ‘지음’이라 할 수 있으며, 최종지는 아마도 가장 격의 없이 지낼 수 있었던 현실 속의 ‘지음’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양빙이 작성한 『초당집』의 「서문」에 이 세 사람이 나란히 등장할 뿐 만 아니라 비중 있게 그 일화가 소개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백의 「회사」편은 바로 이렇듯 이백의 내면세계 속에 매우 각별하게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던 셈이다.

45) 『呂氏春秋·本味』卷十四：“백아가 연주하며 생각한 것은 종자기는 반드시 이해하였다. …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세상에 자신의 음악을 알아 줄 이가 더 이상 없었기에, 이에 거문고를 부수고 현을 끊어 버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伯牙所念, 鍾子期必得之. … 子期死, 伯牙謂世再無知音, 乃破琴絕弦, 終身不復鼓.)”

【참고문헌】

- 최우석, 「이백 ‘古風’59수의 창작상의 ‘繼承’과 ‘創新’」, 『중국어문논총』, 2015. 10.
- 王 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中華書局, 1977.
- 安 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巴蜀書社, 1990.
- 宋敏求·曾 鞏 等編, 『李太白文集』, 巴蜀書社, 1985.
- 唐汝詢, 『唐詩解』, 河北大學出版社, 2001.
-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 謝晉洋, 『魏晉南北朝懷思賦』,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劉義慶, 『世說新語校箋』, 中華書局, 1994.
- 歐陽修, 宋祁, 『新唐書』, 中華書局, 1997.
- 劉 昫, 『舊唐書』, 中華書局, 1997.
- 詹 鏞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百花文藝出版社, 1996.
- 賈晉華, 「李白‘古風’新論」, 『中國李白研究』, 1991.07.
- 張瑞君, 「李白與謝安」, 『清華大學學報』, 2005, 第5期.
- 曹 旭, 「李太白與賀知章」, 『上海師範大學學報』, 1981.04.
- 鬱賢皓, 「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 『中國文學研究』, 1989, 第4期.
- 喬象鍾, 「李白‘古風’考析」, 『文學遺產』, 1984, 第3期.
- 錢志熙, 「論李白‘古風’五十九首的整體性」, 『文學遺產』, 2010.01.
- 葛景春, 「李白與唐代的隱逸之風」, 『天府新論』, 1994. 6期.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李白, 懷思, 賀知章, 謝安, 崔宗之		
Key Words	영문	LI Bai, Huaisi, XIE An, HE Zhizhang, CUI Zhongzhi		
<div><div>The Study on longing of the LI Bai from the poem of 'Huaisi'</div><div>Choi, Woo-suk</div><div><p>The number of poems was not much, because the 「Huaisi(懷思)」 of LI Bai contained a total of 11 poems, but it was expected that this analysis would help to understand the deep inner world of LI Bai more deeply. The nickname 「Huaisi」 might be "a longing or thinking". In the cigar in LI Bai's 「Huaisi」, I could get a glimpse of the following three longings or thoughts. The first was the longing for 'Yinyi' or 'Youxian', which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total 11 numbers, and the second was the longing for the dead. Third, the longing for friends. However, this content is in line with the so-called 「Huaisi Fu(懷思賦)」 of the north and south of Weijin, so this study also used it as a source of LI Bai's 「Huaisi」.</p><p>On the other hand, in the 「Huaisi」 section of LI Bai, it was found that it was composed of contents that directly miss certain specific objects or miss the things related to them. Specifically, 'Dongsan' as a specific space of 'Yinyi' which is often mentioned in poetry was a description of the shape of 'XIE An(謝安)', and 'HE Zhizhang(賀知章)' and 'CUI Zhongzhi(崔宗之)' appeared as objects that LI Bai directly missed. LI Bai's 「huaisi」 was a song of longing for the object that exists very specially in the inner world of LI Bai. It was no coincidence that these three people were introduced side by side in the "preface" of the house of the second house written by Lee Yang-bing, and that the anecdote was introduced in a specific way.</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최우석 / 崔宇錫 / Choi, Woo-Suk		
	소 속	국립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tawoo@andong.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10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